

129. 직업 상담원에서 발생한 근막통 증후군, 우측 제 5요추부 신경근 병증, 우측중간 경추부 신경근 병증

성별 여 나이 44세 직종 사무직(직업상담원)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정OO는 1996년 7월 1일 직업상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5년 11월 OO병원에서 상기 질병을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정OO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업무 및 보고 자료 취합 및 작성으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와 전화를 사용하는 업무를 한다. 전화 상담은 하루 40-50통을 짧게는 수분 보통 20-30분씩하며 길게는 1시간 정도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채용박람회 개최할 때 박스나 컴퓨터 부스 이송 및 설치를 하였는데 2005년 이후에는 기획사에 맡겼다고 하며 집기 나르는 업무는 직원들이 담당했다고 한다. 그 외에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적은 없다고 한다.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높낮이만 조절되는 의자에 얹게 걸터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반듯이 앉는게 아니라 모니터 자체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어 30도 이상 허리를 틀어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손으로는 키보드 입력을 해야하므로 쏟아지는 전화는 어깨와 귀사이에 끼우고 떨어지지 않도록 근육을 긴장시키며 업무를 봤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2001년부터 목과 어깨 통증이 있었으나 파스를 붙이는 정도의 치료만 하였고 2004년 경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2005년 9월 30일 OO대학교 병원 MRI와 X-ray 검사상 근막통 증후군 소견을 받고 2005년 11월 OO대병원 근전도 검사 및 MRI상 근막통 증후군, 우측 제 5요추부 신경근 병증, 우측중간 경추부 신경근 병증으로 진단받고 OO대학교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정OO는,

- ① 직업상담원으로서 작업과 작업환경에 대한 관찰적 기법의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위험도가 낮고, VDT 작업에 한정된 평가에선 중간 정도의 위험과 일부 작업조건에서는 권고기준을 벗어나고 있으나
- ② 직업상담원으로서 업무의 작업기간, 작업자세의 위험도 수준, 컴퓨터 입력작업의 작업시간, 기타 VDT 작업공간상의 위험도가 높지않으며,
- ③ 의학적으로 볼 때 비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정OO의 근막통 증후군(우측요추부 주위근, 우측둔부근, 우측 상모근 및 견갑골 주위), 우측 제 5요추부 신경근 병증, 우측중간 경추부 신경근 병증은직업상담원으로서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